

#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낙인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의 관계\*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현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수료\*\*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김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서울금연지원센터 센터장\*\*\*\*

본 연구는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2030세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 낙인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장소적 맥락을 고려한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인식이 금연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연구 1)와 FGI(연구 2)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1 결과, 흡연 낙인 인식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흡연구역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연구2에서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을 인지, 경험해왔으며, 흡연구역을 정서조절과 심리적 회복의 공간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인식은 흡연 낙인을 금연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하는 심리적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구역에서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낙인을 강화하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흡연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흡연구역 인식을 매개로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이 금연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장소 기반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 설계에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KEY WORDS** 흡연 낙인 • 심리적 저항감 • 흡연구역 인식 • 여성 흡연자 • 금연 캠페인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0S1A5C2A03092919)

\*\* moonhj0728@gmail.com, 제1저자

\*\*\* soontae@ewha.ac.kr, 교신저자

\*\*\*\* hkkim@ewha.ac.kr, 공동저자

## 1. 서론

금연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흡연구역은 공공 공간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Tan, 2013a). 그러나 흡연구역은 동시에 흡연이 실제로 반복되는 현장이자 흡연자들이 필연적으로 모이는 장소로서, 금연 메시지가 목표공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표적 접점이다. 그럼에도 흡연구역은 주로 통제·축소의 공간으로 다뤄져 왔으며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개입 지점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그 결과 흡연구역 맥락에서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수용·재해석되고, 그 과정이 심리적 반응 및 행동 의도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제한적이다(Tan, 2013b; Barnett et al., 2016; Parry & Hassan, 2019).

국내 금연 캠페인은 ‘흡연은 질병’이라는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이 흡연자에게 설득보다 통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ayer, 2008; Stuber et al., 2009). 이러한 비판은 낙인이 사회적 압력으로 강화될 때 금연을 촉진하기보다 비난이나 통제로 지각되어 방어적 반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Corrigan et al., 2001). 즉, 문제는 낙인의 존재 자체라기보다 낙인이 어떤 조건에서 금연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 전환되는지에 있다. 또한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취약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Woo, 2018). 이혜진·안순태(2016)는 흡연자의 사회적 낙인 인식이 계획단계(금연 동기가 없는 집단)나 저소득 집단에서는 금연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낙인과 규범 압력이 금연 동기로 전환되기보다 금연 요구를 무시하거나 흡연을 고수하는 등 방어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흡연자는 흡연 사실을 은폐,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상당수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s)’로 존재한다(Choi, Khang & Cho, 2012; Park et al., 2014). 이는 임신과 출산 등 전통적 여성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유교적 문화와 결합하면서 여성 흡연을 부적절한 행위로 낙인화해 온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젠더화된 낙인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제재에 대한 부담을 높여 일상적 긴장과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흡연 사실의 은폐를 지속,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2030세대 여성에게 흡연은 단순한 니코틴 의존을 넘어

체중 조절 및 정서 완화에 대한 기대를 통해 강화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Copeland & Carney, 2003). 또한 이들에게 흡연은 스트레스, 음주,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Lee & Lee, 2019),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 낙인(smoking stigma)’은 죄책감, 수치심 등 부정적 심리사회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연 시도 지연, 의료서비스 이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Woo, 2018; David et al., 2024). 때문에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흡연 행동은 낙인과 심리적 기능이 결합된 특수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흡연 낙인이 취약 집단에게 금연 규제나 정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psychological reactance)’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흡연자는 도덕적 평가와 규범적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금연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건강 정보가 아닌 통제나 비난으로 해석해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감을 보일 수 있다(Ha et al., 2024). 이처럼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이 높아지면 정책 개입 수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금연 행동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지연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흡연구역(smoking area)은 흡연자에게 단순한 흡연 허용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시선과 규범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장소로 경험될 수 있다. 즉, 흡연자에게 흡연 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다. 폴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에서 흔히 ‘유배 속의 동지애(camaraderie in exile)’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Paul et al., 2010). 이는 흡연자들이 평소 흡연 행위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맥락에서 흡연구역은 단순한 흡연 장소를 넘어 흡연자들 간 소속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흡연구역은 낙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심리적 완충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과, 사회적 경계가 가시화되는 장소로서의 압박이 공존하는 양가적 의미 공간일 수 있다. 이에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는 것’과 그 공간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흡연자의 경험과 심리적 기제를 반영한 메시지를 설계,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접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기반 맥락에서 흡연자의 낙인 경험이 심리적 저항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 기반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흡연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내재화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낙인이 특정 집단에서 금연 행동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반발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낙인의 효과를 결과 중심으로 다루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낙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지를 장소 맥락을 통해 설명하여 이를 흡연구역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흡연 낙인 연구는 주로 금연 캠페인의 전략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 전개 되어 왔고, 개인의 심리적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은 주로 질적 접근을 통해 부분적으로 탐색되는데 그쳤다(김관욱, 2015; 김영옥, 이현승, 2015). 이에 본 연구는 정량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경로를 토대로, 여성 흡연자가 흡연구역에서 낙인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를 추가로 탐색함으로써 낙인 경험이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맥락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기반 맥락에서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과 심리적 저항의 연결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장소 기반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 설계에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2. 이론적 배경

### 1) 흡연 낙인(Smoking Stigma)

낙인(stigma)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공유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정상성(norm)’에서 벗어난 존재로 규정하는 과정으로, 타인의 평가를 넘어 개인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 구성 방식까지 변화시킨다(Goffman, 1963). 헬스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낙인은 건강 문제나 건강행위를 둘러싼 평가절하·비난의 사회적 메커니즘이자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차별적 현실을 뜻한다(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특히 건강 행위

가 ‘개인이 통제 가능한 선택’으로 인식될수록 책임은 개인에게 귀인(attribution)되고 비난과 거리두기가 정당화되며 낙인이 강화된다. 나아가 도덕화된 귀인은 외부 낙인(public stigma)을 개인의 자기개념에 흡수시켜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내면화한다(Corrigan & Watson, 2002; Corriga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흡연 낙인은 금연 규제와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의 확산 속에서 흡연을 도덕적 판단과 책임 귀인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외부 평가가 자기 낙인으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동안 비흡연을 ‘새로운 정상성(new norm)’으로 정착시키려는 비주류화 전략은 금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규범 메시지와 경고 소구를 통해 금연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오미영, 2011;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그러나 규범 기반 접근이 강화될수록 흡연자에 대한 낙인은 강력하지만 종종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해 설득이라기보다 통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ayer, 2008; Stuber et al., 2009). 반흡연 규범을 전면화한 메시지는 일부 흡연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인식을 유발하여 자유 위협(freedom threat)으로 지각될 수 있고, 그 결과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과 메시지 회피, 금연 서비스 거부 등 방어적 반응을 강화할 수 있다(Brehm, 1966). 심리적 저항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지각할 때 이를 회복하려는 동기적 상태로, 메시지에 대한 반감, 반대 태도 형성, 그리고 의도와 상반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illard & Shen,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단순한 부정적 평가를 넘어 개인의 행동 선택을 제약하는 사회적 통제 신호로 작용하며 흡연자에게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 집단에서 낙인은 금연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혜진, 안순태(2016)에 따르면 흡연자의 사회적 낙인 인식은 계획전단계(금연 동기가 없는 집단)나 저소득 집단에서 금연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낙인이 변화 동기보다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발과 흡연 유지와 같은 방어적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흡연 낙인 인식이 높은 여성 흡연자의 경우 금연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낙인이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 et al., 2024). 따라서 금연 커뮤니케이션은 규범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메

시지가 낙인과 통제로 해석되는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 흡연자는 흡연 낙인과 더해 젠더 규범을 위반했다는 평가에 직면하며 이중적 낙인(double stigma)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가 흡연 사실을 숨기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s)’로 존재한다는 보고는 이러한 압력을 뒷받침한다(Woo, 2018). 이때 낙인이 도덕적 판단과 통제적 압박으로 지각되면 금연 동기보다 정체성 위협이 선행되어 방어적 반응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은폐 행동은 단순한 인상 관리가 아닌 위협받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Major & O'Brien, 2005; Corrigan, Rafacz & Rüsck, 2011). 이러한 은폐와 자기통제는 외부 통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심리적 저항을 강화하고, 죄책감·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누적시키는 동시에 금연 시도 지연이나 의료·금연 서비스 이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Corrigan et al., 2001; Woo, 2018; David et al., 2024).

기존 금연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낙인이 흡연을 비정상화하고 흡연 행동을 억제하는 사회적 규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Bell et al., 2010). 그러나 낙인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저항’이나 ‘회피’와 같은 행동 반응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 낙인을 금연을 유도하는 기제로 전제하기보다 특정 조건에서 통제와 정체성 위협으로 해석되어 행동 저항을 촉발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흡연 은폐가 두드러진 여성 흡연자를 중심으로 낙인 경험과 인식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 흡연구역 인식(Smoking-area perception)

우리 사회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Fong et al., 2006). 이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이 ‘공간의 정화(purification of space)’ 과정을 통해 공간 질서를 재편해 왔음을 시사한다(Poland, 1998; Hammond et al., 2006). 이 과정에서 흡연 행위는 공적 공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 형성된 흡연구역은 단순히 흡연을 허용하는 기능

적 공간을 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경계를 공간적으로 가시화하고 흡연자를 사회적 주변부로 위치시키는 상징적·규율적 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산물을 ‘스모킹 아일랜드(smoking islands)’로 개념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Thompson et al., 2007). 흡연구역은 흡연이 ‘무책임함’이나 ‘비양심성’과 연결되어 평가되는 도덕적 지리(moral geographies)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건강 규범과 책임 담론, 도덕적 판단이 공간에 고착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한다(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나아가 이러한 장소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들어내는 규범적 분위기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Barnett et al., 2016). 다시 말해, 흡연 낙인은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규범적 거리두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 틀을 제공하고, 그 틀 속에서 흡연구역은 단순한 기능적 장소가 아니라 정상적 사회 질서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흡연구역은 흡연자에게 사회적 시선과 규범적 압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양가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흡연 공간에서 ‘유배 속 동지애(camaraderie in exile)’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는데(Paul et al., 2010), 이는 흡연자가 동일한 행위를 공유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약화된 사회적 소속감과 동질감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유배’라는 표현은 흡연구역이 연대와 완충을 제공하는 공간인 동시에, 부정적 시선이 응축되고 낙인 경험에 축적되는 공간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는 곧 흡연구역이 흡연자에게 ‘안도’를 제공하면서도, 이 조건 자체가 분리, 배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낙인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한다. 즉, 흡연구역은 소속감과 고립감, 안도감과 낙인이 교차하는 양가적 의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흡연구역 인식을 단순한 환경 평가가 아닌 흡연자가 사회적 시선과 규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고 정당화하며 조절하는 과정으로 축적시킨다. 무엇보다 낙인 인식이나 경험이 강할수록 흡연구역은 잠시 숨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감시와 배제가 응축된 공간으로 더 예민하게 읽히고, 이 해석은 이후 방어·회피·반발 등 심리적 반응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 흡연자는 흡연이 젠더 규범 위반으로 도덕화되기 쉬운 맥락에서 흡연 은폐를 동반하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의 경우가 많아, 흡연구역을 피난처이자 노출 위험이 큰 공간으로 동시에 지각할 가능

성이 크다(Choi, Khang & Cho, 2012; Park et al., 2014). 따라서 흡연구역 인식은 환경에 대한 태도나 만족을 넘어, 규범적 압력 속에서 자기 이해와 정체성 조절이 작동하는 해석적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흡연구역은 흡연자의 흡연 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장소인 동시에, 금연 규범과 정책에 의해 배제와 추방이 이루어지는 ‘스모킹 아일랜드’라는 공간화 된 결과로 논의되어왔다(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이러한 관점은 흡연구역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규범과 권력이 공간적으로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흡연자의 공간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접근에 의존해 왔으며, 흡연구역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나 행동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Tan, 2013b; Barnett et al., 2016; Parry & Hassan, 2019).

더구나 흡연구역은 공공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온 공간이며, 동시에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공중이 존재하는 현장임에도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 개입 지점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과 그 안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분리해 보는 이중 전략(two-track approach)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흡연구역 인식을 단순한 장소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해석으로 개념화하고 그 인식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흡연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용자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금연 캠페인은 흡연구역을 단순한 배제의 공간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흡연자의 경험과 심리적 기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개입의 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낙인 경험/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을 흡연구역에 대한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순차적 설명 혼합연구(sequential explanatory design)를 적용하여 정량-정성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낙인 경험/인식과 심리적 저항감 간 관계에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표적 집단 심층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하여 여성 흡연자가 낙인을 어떻게 경험·해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흡연구역의 공간적 의미가 낙인 경험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맥락적 기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 1) 연구 1 :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 -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 (1) 연구방법

연구 1은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총 12일) 서울 소재 여자 대학교 교내 주요 흡연구역 인근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58명의 여성 흡연자가 참여하였다. 흡연자는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흡연을 지속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이를 참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Cornacchione & smith, 2012).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였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흡연자 낙인 경험/인식, 흡연구역 인식에 응답하였으며, 추가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학년, 생활비)과 흡연 관련 특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 (2) 주요 변인 측정

#### ①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psychological reactance)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금연 행동에 대한 요구 또는 기대가 개인의 행동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한다고 지각할 때 발생하는 동기적 반발 상태로 정의하였다(Dillard & Shen, 2005).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심리적 저항감을 감정적, 인지적 측면으로 항목을 구체화한 딜라드와 셴(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감정적 요인인 ‘분노

(anger)', 인지적 요인인 '부정적 인지(negative cognition)', '자유에 대한 위협(threat to freedom)'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측정 문항은 유선욱, 박계현, 나은영(2009)의 연구를 함께 참고하였다. 분노에 대한 측정 문항(3문항)은 '(금연에 대해 생각하면) 불쾌하다', '거부감이 든다', '짜증이 난다'로, 인지적 요인인 부정적 인지에 대한 문항(3문항)은 '(금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로 구성하였으며 자유에 대한 위협(3문항)은 '(금연에 대해 생각하면) 나에게 압력을 주는 것 같다', '흡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어진다'로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86$ ).

### ②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은 흡연자가 인지하는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기능(권리)과 감정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일반적 평가(태도)를 '장소감(sense of place: SOP)'으로 개념화하여 인지, 정서로 구분하여 측정한 요르겐센과 스테드먼(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항목 일부를 흡연구역에 적용하였다(Jorgensen & Stedman, 2001). 측정 문항은 '흡연구역은 내가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흡연구역은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흡연구역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총 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4$ ).

### ③ 흡연 낙인 인식(smoking stigma)

흡연 낙인 인식은 흡연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생각과 경험으로 정의하였으며(김영옥, 박단아, 김수현, 2018),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3문항)과 낙인 경험(4문항)으로 나누어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은 이해진, 안순태(2016)의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사회는 흡연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흡연자를 기피한다', '우리 사회는 흡연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로 구성하였으며, 흡연자의 낙인 경험은 '비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된 적이 있다', '시선을 의식하며 흡연할 때가 많다', '사회가 흡연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느낀다', '흡연자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로 측정하였다(Stuber, Galea

& Link, 2008)(Cronbach's  $\alpha = .82$ ).

#### ④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저항 성향과 흡연 관련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개인의 저항 성향(trait reactance)은 외부 통제나 권위에 대한 반항적 성향을 의미하는 개인차 변수로(Wiium et al., 2009), 금연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Thrasher et al., 2016; Boukamcha, 2016). 이에 심리적 저항감에 대한 개인차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혜선과 나은영(2023)의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71$ ). 또한 행동변화단계(stage of change)는 금연 준비 수준에 따라 건강 메시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DiClemente et al., 1991; Kim & Lee, 2017). 금연 행동 이전 단계인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 계획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preparation)를 측정하기 위해(Prochaska & DiClemente, 1983), 안희경 외(2002)의 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금연 계획 시점을 기준으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 외 참여자의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학년, 수입)과 주요 사용 담배 유형,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등 기초 흡연 특성을 묻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니코틴 의존도는 헤더턴과 동료들(Heatherton et al., 1991)의 측정도구를 한국어판으로 검증한 안희경 외(2002)의 FTND(Korean version of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참고하여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63$ ). FTND는 니코틴 의존 행동을 평가하는 지표(index) 성격의 도구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내적 타당도를 보이고 있으며(Sharma et al., 2021), 이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기초 흡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 (3) 연구 분석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alpha$ 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5,000회의 표본을 재추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중심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해석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G\*Power를 활용한 사후 검정력 분석 결과(N=58),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 $f^2 = .33$ )를 가정할 경우 검정력은 .89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결과는 효과크기 가정에 기반 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2) 연구 2 :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과 흡연구역에 대한 의미화 탐색

### (1) 연구 문제 및 방법

두 번째 연구는 연구 1의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구역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여성 흡연자가 경험, 인지하는 사회적 낙인이 미치는 심리적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고자 표적 집단 심층 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20~30대 여성 흡연자로, 흡연자는 면접일 기준 흡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하루 평균 5개비 이상 흡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Cornacchione & Smith, 2012). 참여자는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인터뷰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9명의 여성 흡연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획득하였다. 또한 면담 시작 전 흡연 행태 등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사전 설문을 실시한 후 회기 당 약 90~120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흡연자 낙인과 같이 민감한 주제에서 참여자의 방어적 반응 및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최소화하고, 언어화되기 어려운 인식·정서·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도출하기 위해 투사기법(projective techniques)을 활용하였다. 투사기법은 이미지, 은유/비유, 이야기 등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참여자가 내재된 태도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질적 자료 수집 전략으로, 면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촉발하고 구체화하는 유도(elicitation) 기법의 한 형태로도 논의된다(Donoghue, S., 2000; Porr, C. et al., 2011).

FGI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① 도입(아이스 브레이킹), ② 여성 흡연자에 대한 낙인 인식, ③ 흡연구역 경험, ④ 자아-흡연자 자기 정체성 비교 순으로 구성되었다. 낙인 인식 단계에서는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캐릭터나 동물에 비유하도록 하는 투사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경험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흡연구역 경험 단계에서는 흡연구역 이용 시의 감정, 타인의 시선 경험, 공간적 분위기 인식 등을 질문하였으며, '흡연구역을 하나의 장소나 캐릭터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와 같은 은유적 질문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 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흡연자 정체성 비교 단계에서는 '일상 속 나'와 '흡연 중인 나'를 각각 캐릭터(이미지)로 표현하도록 하여, 두 정체성 간의 차이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자기제시 양상을 탐색하였다. 모든 질문은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탐색 질문(probing)을 통해 진술의 의미와 맥락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 과정을 그대로 녹음하고 이후 전사 기록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02510-0035-01).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방법, 자료의 비밀유지, 익명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의사를 표현한 대상자에게 직접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와 FGI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학문적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며, 연구 종료 3년 후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 5. 연구 1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는 서울 소재 여자 대학교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20~30대 여성 흡연자 5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주로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4학년 이상 졸업(예정)자인 학생이 70.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생활비는 100만 원 이상(34.5%)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담배(51.7%), 복합흡연(25.9%), 액상형 전자/가열담배(22.4%) 순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매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81.0%)로, 습관적으로(48.3%) 또는 스트레스 해소(46.6%)를 위해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성인 이후, 82.8%)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대부분 낮은 수준(0~3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금연 계획에 대해 '계획은 없지만 생각 있음(63.8%)'이 가장 많았으며, '계획전 단계(precontemplation)'수준, 즉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금연(24시간 기준)을 시도했던 참여자는 69%로 가장 많았으며, 1~3회 미만(44.8%), 5회 이상(2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흡연 특성

구분		인원(명)	비율(%)
학년	1학년	2	3.4
	2학년	5	8.6
	3학년	10	17.2
	4학년(졸업자) 이상	41	70.7
생활비 (용돈)	60만 원 미만	14	24.1
	60~80만 원 미만	11	19.0
	80~100만 원 미만	13	22.4
	100만 원 이상	20	34.5
주요 흡연 담배	일반담배(궐련)	30	51.7
	액상형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13	22.4
	복합 흡연(일반담배+액상형 전자/가열담배)	15	25.9

	구분	인원(명)	비율(%)
흡연량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피운다	3	5,2
	매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8	13,8
	매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47	81,0
흡연 이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7	46,6
	습관적으로	28	48,3
	주변 사람들(친구, 가족, 배우자)과 함께 하기 위해	1	1,7
	기타	2	3,4
첫 흡연 시기	초등학교 재학~졸업 이전	1	1,7
	중학교 재학~졸업 이전	2	3,4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전	7	12,1
	고등학교 졸업 이후(성인 이후)	48	82,8
니코틴 의존도	낮은 수준(0~3점)	36	77,6
	중간 수준(4~6점)	11	19,0
	높은 수준(7~10점)	2	3,4
동거인 흡연여부	있음	30	51,7
	없음	28	48,3
금연 행동 변화 단계	전혀 없음	7	12,1
	계획은 없지만 생각 있음	37	63,8
	향후 1년(12개월) 이내	3	5,2
	향후 6개월 이내	7	12,1
	향후 1개월 이내	4	6,9
금연 시도여부	예	40	69,0
	아니오	18	31,0
금연 시도 횟수	없다	14	24,1
	1~3회 미만	26	44,8
	3~5회 미만	1	1,7
	5회 이상	17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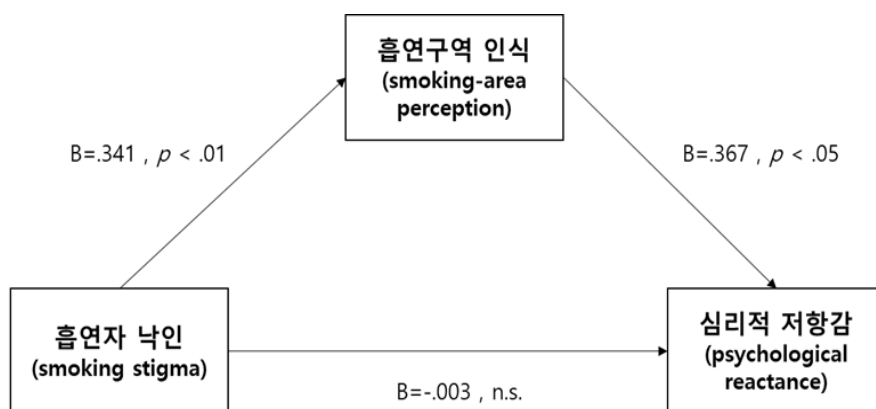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흡연자 낙인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한 단순 매개 모형(simple medi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먼저 표2의 흡연구역 인식(M)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개인 저항 성향(B = .300, p = .007)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자가 낙인 인식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 .341 p = .000). 이는 통제적 요

구에 반발하는 경향이 높은 흡연자일수록, 흡연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기능과 감정적 의미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의 모형 검증 결과, 흡연자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3, p = .982$ ). 반면 흡연자 낙인이 흡연구역 인식을 매개로 심리적 저항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128, 95\% \text{ CI } [.0013, .2822]$ ). 구체적으로, 낙인 인식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B = .341, p < .01$ ), 흡연구역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저항감도 증가하였다( $B = .367, p < .05$ ). 특히 낙인 인식과 통제 변수들은 심리적 저항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흡연구역 인식만이 유의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의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작용하기보다 '흡연구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장소에 대한 인지구성 과정을 통해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간접(매개) 경로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흡연구역 인식은 흡연자의 장소적 의미 부여와 정서적 애착(attachment)을 강화하는 의미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화는 흡연구역 내 금연 커뮤니케이션을 자율성 침해로 지각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저항감을 증폭시키는 경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흡연자의 낙인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축적·재구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매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 N = 58. 비표준화 회귀계수(B)를 제시하였다. 간접효과 = .128, 95% 신뢰구간 [.001, .283].

그림 1. 연구 모형 검증 결과

표 2. 흡연구역 인식(매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PROCESS Model 4)

DV: 흡연구역 인식(M)	B	SE	t	p	95% CI	
					LLCI	ULCI
흡연자 낙인(x)	0,341	0,111	3,15	,003**	,126	,571
개인 저항 성향	0,300	0,107	2,82	,007*	,087	,514
행동변화단계	-0,095	0,081	-1,17	,246	-,258	,067
학년	-0,171	0,105	-1,63	,110	-,382	,040
수입	0,180	0,070	2,59	,013*	,040	,319
Model summary	$R^2 = ,32, F(5,52) = 4,79, p = ,001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심리적 저항감(결과변수)의 회귀분석 결과(PROCESS Model 4)

DV: 심리적 저항감 (Y)	B	SE	t	p	95% CI	
					LLCI	ULCI
흡연자 낙인(x)	-0,003	0,135	-0,02	0,982	-,274	,268
흡연구역 인식(M)	0,367	0,155	2,37	0,022*	,056	,678
개인 저항 성향	0,149	0,128	1,16	0,250	-,108	,406
행동변화단계	-0,096	0,092	-1,05	0,300	-,280	,088
학년	0,059	0,121	0,49	0,626	-,183	,301
수입	0,084	0,083	1,02	0,312	-,081	,250
Model summary	$R^2 = ,25 F(6,51) = 2,85, p = ,0181$					

\* $p < .05$ , \*\* $p < .01$ , \*\*\* $p < .001$

## 6. 연구 2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졸업(예정)자인 학생과 회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1의 참여자와는 다른 별도의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 각각 4명, 복합흡연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금연 의사가 있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FGI 참여자 정보

순번	나이	직업	주요 흡연담배	흡연경력	금연행동단계	금연시도여부
1	25	학부졸업생 (조교)	일반담배	약 5년	향후 6개월 이내	유
2	23	학부생	일반담배	약 3년	생각 있음	유
3	27	대학원생	복합흡연	약 8년	향후 6개월 이내	유
4	22	학부생	전자담배	약 2년	생각 있음	유
5	23	학부생	일반담배	약 2년	생각 있음	유
6	37	대학원생	전자담배	약 9년	향후 1개월 이내	유
7	29	대학원생	전자담배	약 9년	전혀 없음	유
8	27	회사원	전자담배	약 7년	생각 있음	무
9	32	공무원	일반담배	약 10년	전혀 없음	무

## 2)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내재화와 정체성 방어

참여자들은 여성 흡연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낙인)를 강하게 보고하였으며, 그 평가에는 ‘노는 것 같은’ 인상과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함께 나타났다. 또한 남성 흡연은 비교적 자유롭게 용인되는 반면 여성 흡연은 더 엄격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오랫동안 인지해왔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여성 흡연자를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에 비유하며 자신처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자기 투영(self-projection)을 하거나, 어두운 구석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생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성 흡연자는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 같아요. 저처럼 뭔가 불안한..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은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하나니까”*

*“골목에 잘 숨어서 약간 ‘생쥐’ 같은 느낌?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피는데 유독 훨씬 으스스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외진 곳에서 흡연하는 이미지예요”*

*“술집 앞에만 가 봐도 아저씨들이 피는 건 많은데 아주머니들이 피는 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여성 흡연에 대한 낙인 경험에 ‘연령(age)’ 요인이 중첩되면서 그 의미가 결

혼·임신·출산 등 생애 전환과 연동된 미래 건강 불안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흡연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30대 초반 참여자들은 이러한 이유에 공감하며 향후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우리 사회 전통적 성(性)역할 규범이 여성 흡연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평가(낙인)를 강화해왔으며, 그 평가가 일부 참여자에게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내재화되어 자기 낙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은 외부의 시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생애 계획과 건강 판단을 조직하는 '도덕적 평가의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끊어야죠. ... 결혼해서 애를 가지기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곧 서른으로 넘어가는 때라, 아직 금연 생각이 없는데 친구들은 금연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체력적 한계가 확 와 닿았고 이제 20대 초반과는 많이 다르다. ... 금연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처럼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내재화된 낙인 경험과 인식은 일상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낙인과 부정적 시선을 상시적으로 의식하며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덕적 흡연자'로서의 자기 관리와 규범 준수를 의도적으로 강화하려 노력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준수한다고 답했으며, 부득이하게 흡연구역이 아닌 경우 자신이 흡연한 담배꽂초를 챙겨 휴지통에 버리는 등 공중도덕과 에티켓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

*“흡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데 담배꽂초 아무 데나 버리고 침 딱 짹짹 빨고 다니고 기본 에티켓 같은 걸 안 지켜서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저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더 지키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도덕성? ... 이제 남성 흡연자들과 차별되는 여성 흡연자의 특징이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들 중에 챙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러한 행동 준수에 대해 참여자들은 소위 '무례한 흡연자(주로 남성)'가 만들어낸

부정적 이미지가 흡연자 집단 전체, 특히 여성 흡연자에게 연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규범 준수와 자기 관리가 단순한 예절의 실천을 넘어 내재화된 낙인에 대응하는 행동적 결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들은 문제적 흡연 행위를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고 자신을 그들과 분리함으로써, 부정적 범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체성 방어 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규범 준수는 개인적 예절의 실천인 동시에 '나는 그런 사람(문제적 흡연자)이 아니다'라는 정체성 주장을 수행하는 낙인 회피와 차별화의 기제로 기능한다.

### 3) 흡연구역의 양가적 의미 - 나만의 심리적 휴식처이자 감시·위축의 공간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을 대체로 어둡고 구석진 장소로 표상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흡연구역을 긴장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일상과의 단절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회복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사무실 등에서 성과와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머리를 비우고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전환 구간(transition space)'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흡연구역을 '아메리카노'에 비유하며, 흡연구역이 심리적 재정렬, 즉 '리프레쉬(refresh)'를 통해 정서적으로 진정되는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진짜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있다가 아니면 연구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그냥 단절, 약간 머리 아픈 일들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생각의 흐름을 끊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들어가자 하는 느낌으로...그냥 혼자서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생각나요”*

*“흡연구역은 저에게 '아메리카노' 같아요. 입이 깔끔해지고 텅텅한 기운을 없애 주는 곳? 리프레쉬? 그런 작용을 비슷하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흡연구역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은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강화되었다.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을 사회적 압력이 완화된 환경으로 인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흡연 행동에 대한 규제가 적게 작용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도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낙인 환경 속에서 흡연구역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흡연자의 '정서적 의미화'가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반복되는 낙인 경험 속에서 자율성 침해에 대한 자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에서 남성 흡연자(주로 50~60대)로부터 언어적·행동적 무례와 여성 흡연에 대한 낙인을 종종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 감정과 함께 흡연구역에서조차 자신의 선택(흡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제가 20살 초반 때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담배피냐...그랬던 것 같아요. ... 제가 어디 금연구역에서 핀 것도 아니고, 흡연구역을 잘 지켰는데 그러는 게 좀.. ... 그럴 때 저는 '뭘 상관이지? 강약약강(強弱弱強)이 되게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흡연 구역에서 피고 있어도 아가씨가 담배를 피우면 애를 못 넣고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진짜 대놓고 하셔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딴 데 보면서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짜증, 무시,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금연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보다 낙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대응, 예를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황을 회피하고,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구역에서의 낙인 경험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자유 위협에 대한 반발이라는 심리적 저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별 타격이 없는?ㅎㅎ ... 남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나도 알아^^(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짜증 나서 담배를 더 피지.. 막 그런 경험 때문에 (금연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거 같아요”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자신의 대인관계, 직장 내 평판, 직업적 정체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일부는 직장 내 흡연자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주변 인물로부터 흡연 여부를 공개적으로 추궁당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흡연이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낙인 경험의 축적은 흡연구역을 '심리적 회복 공간'으로 더욱 강하게 의미화 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서조차 간섭과 평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권리 침해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흡연구역에서) 회사 내 흡연자 무리를 같이 따라가서 같이 피니까 넌 저쪽에서 혼자 피라고 하더라고요 ...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 과장님이 대놓고 OO 씨 담배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그룹에서 배제하려고요.”*

*“여성 교사가 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주변 선배 교사 분들이 절대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일부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흡연구역에서 위축과 긴장을 보고했는데, 이는 흡연구역 인식이 장소 자체의 고정된 평가라기보다 사회적 관계 노출의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적 기반 인식임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심리적 회복의 공간이자 상황, 관계에 따라 축적되는 의미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흡연구역에서의 사회적 낙인 인식과 경험이 부정 정서를 촉발하고, 방어적 대응과 흡연 지속을 강화하는 반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의미가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을 촉발하는 반응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흡연 낙인은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의미화(심리적 회복·권리·감시의 양가성)를 매개로 저항 반응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 4) 일상의 나 vs. 흡연구역에서의 나

참여자들은 일상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민함과 긴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며 자기통제를 강화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흡연구역에 들어서면 이러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평소보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상태로 전환되고, 그 공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로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 한 참여자는 일상의 자신을 '고슴

도치'로 비유하며 늘 가시를 세운 채 방어적으로 지내지만, 흡연구역에서는 가시가 없는 '쥐'처럼 경계가 풀린다고 표현했다. 이는 흡연구역이 이들에게 단순한 흡연 장소를 넘어 정서조절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공간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일상 속 저의 모습은 다들 대차고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흡연구역에서는 ‘쥐’ 같아요. 담배를 피우면 가시가 없어지거든요”*

이들이 묘사한 ‘흡연구역에서의 나’는 두 가지 경험으로 정리된다. 첫째, 흡연은 일상에서 지속되던 긴장과 방어를 잠시 누그러뜨려 보다 덜 방어적인 자기 상태로 전환시키는 ‘진정(soothing)’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시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활력과 수행을 다시 가동하게 만드는 ‘재충전(recharging)’의 경험으로 보고되었다. 즉, 흡연구역은 긴장을 완화하는 순간적 이완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상적 자기통제를 지속하기 위한 회복의 공간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일상 속 저는 은근 긴장을 약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막 그런 편인데 쉽게 긴장을 하고 긴장한 걸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그런데 흡연 구역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자 하면서 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종합하면, 흡연구역은 동일한 자아가 머무는 공간임에도 정서·각성 수준과 자기통제의 강도를 재조정하게 만드는 ‘자기 상태 전환(self-switching)의 지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1에서 확인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는, 참여자들이 흡연구역을 단순한 흡연 허용 공간이 아니라 정서조절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적 자원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던 점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즉, 흡연구역의 정서조절 기능이 강하게 인식될수록 참여자들은 낙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리·자기통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심리적 완충지대’를 확보한다고 느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타인 간섭, 평가, 그리고 배제의 경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허용된 공간에서조차 나의 선택과 권리가 침해된다는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각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낙인 경험은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흡연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지를 매개로 ‘자유/권리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다시 정돈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흡연구역은 금연 요구나 통제적 개입을 자유 위협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맥락 조건을 포함한 장소로 경험되고 있었다.

## 7.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흡연구역 인식이라는 장소 기반 매개 과정을 통해 탐색하였다. 정량(연구 1)과 정성(연구 2)을 순차적으로 통합한 결과, 흡연자의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기능(권리)과 감정적 인식 수준에 따라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흡연 낙인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흡연구역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낙인이 축적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의 의미화가 강화될 때 금연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2의 FGI 결과, 20~30세대 여성 흡연자들은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낙인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으며, 이를 상당 부분 내면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Corrigan & Watson, 2002; Corrigan, 2012). 이러한 낙인 인식은 흡연구역 규칙 준수나 담배꽂초의 적정 처리와 같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도덕적(책임있는) 흡연자’로 보이기 위한 일상적 실천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낙인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배려심 있는 흡연자’로 위치짓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함께한다(Tan, 2013a, 2013b). 이는 낙인이 금연 행동을 무조건 촉진하기보다 도덕적 평가와 통제적 압박으로 지각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위협을 먼저 촉발하고, 그 결과 낙인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대응(인상관리·규범 준수 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Major & O'Brien, 2005; Corrigan, Rafacz & Rüsche, 2011). 특히 이러한 낙인 경험과 인식은 흡연구역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형성하며, 흡연구역을 단순한 흡연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때 흡

연구에서의 낙인 경험은 자유에 대한 위협 지각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낙인에 대한 반발이 강화되어 심리적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들의 반복된 공간 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능적·정서적 의미의 장소 해석이 축적된 형태이며, 일부 진술에서는 흡연구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의존이 드러나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의 기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Parry & Hassan, 2019). 이는 낙인이 공간 경험을 매개로 금연 메시지에 대한 저항을 촉발할 수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 낙인을 금연 행동을 촉진하는 규범적 기제로만 가정해 온 금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중요한 보완점을 제시한다.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공간적 기능을 넘어 정서적 의미화가 축적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흡연구역에서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낙인을 강화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 1에서 흡연구역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낙인이 곧바로 금연 의도로 연결되기보다 장소적 맥락에서 자유 위협 지각과 방어적 해석을 자극해 심리적 저항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낙인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보편적이지 않으며(이혜진, 안순태, 2016; Bayer, 2008; Stuber et al., 2009), 낙인이 개인에게 정체성 위협과 통제 압력으로 경험될 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개입, 설계에 있어 메시지의 내용(프레이밍)뿐 아니라 메시지가 놓이는 장소의 경험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흡연구역이 단순한 흡연 허용 공간이 아닌 안전감과 회복, 최소 권리의 인식, 노출 위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경험이 축적되는 의미화 공간으로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구역이 건강 규범과 책임 담론, 도덕적 판단이 공간에 고착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때문에 흡연구역에서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논의한 심리적 저항감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장소 기반 개입은 ‘금연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흡연구역에서 형성되는 방어적 해석 가능성을 낮추고 낙인 환경을 완화하는 방향, 예컨대 자율성 지지, 상호존중, 선택의 여지와 지원 정보 제공 등으로 설계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Quick & Kim, 2009).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흡연구역

내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방식, 정보 제공 수준, 상호작용 유도 방식 등 구체적 설계 원리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장소 기반 개입의 실행 가능성과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 흡연자에서 확인된 경로를 토대로 여러 낙인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확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혜진·안순태(2016)는 낙인화 전략의 효과가 흡연자 특성과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는 낙인과 규범 압력이 금연 동기로 전환되기보다 방어적 태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흡연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낙인이 금연 동기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기보다 특정 집단과 맥락에서는 도덕적 평가와 통제 압력으로 지각되어 정체성 위협과 방어적 해석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0세대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잠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휴식, 심리적 회복의 공간으로 의미화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흡연구역에서 낙인과 심리적 저항 간의 관계를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표본수(N=58)에 따른 한계 등 결과 해석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 대학의 흡연구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또한 특정 집단(여자 대학생)에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흡연 낙인이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인식/경험을 매개로 흡연자에게 자유 위협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저항을 촉발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이 경로가 어떤 조건에서 약화, 강화되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흡연자 외에도 낙인에 취약한 집단(예: 청소년, 노인,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 등)을 포함해 비교·확장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흡연구역이라는 장소적 맥락을 반영한 타겟별 금연 캠페인의 설계와 효과 검증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공포 소구 및 흡연에 대한 감정이 금연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효능감과 낙인 인식의 조절 및 매개 효과 중심. *한국광고홍보학보*, 20(1), 250~290.
- 김영옥·이현승 (2015). 죽음 현저성, 흡연의도, 그리고 세계관 방어: 금연광고 효과에 대한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의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94~143.
- 유선옥·박계현·나은영 (2010).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공포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3), 27~53.
- 이혜선·나은영 (2023). 모바일 게임 이용에 관한 캠페인 메시지가 20대의 심리적 저항과 과도한 이용을 향한 경각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설명적 유형과 저항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7(2), 191~231.
- 이혜진·안순태 (2016). 금연 캠페인의 사회적 낙인 효과 연구: 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조절효과. *광고PR실학연구*, 9(4), 183~208.
- Barnett, R., Moon, G., Pearce, J., Thompson, L., & Twigg, L. (2016). *Smoking geographies: Space, place and tobacco*. John Wiley & Sons.
- Bayer, R. (2008). Stigma and the ethics of public health: Not can we but should we.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463~472.
- Bell, K., McCullough, L., Salmon, A., & Bell, J. (2010). "Every space is claimed": Smokers' experiences of tobacco denormalisation.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2(6), 914~929.
- Boukamcha, F. (2016). Situational and personality effects on smokers' psychological reac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Marketing*, 10(4), 432~448.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Academic Press.
- Copeland, A. L., & Carney, C. E. (2003). Smoking expectancies as mediators between dietary restraint and disinhibition and smoking in college women.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1(3), 247.
- Cornacchione, J., & Smith, S. W. (2012).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within the stages of change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s and behaviors.

- Health Communication*, 27(6), 612~622.
- Corrigan, P. W., Rafacz, J., & Rüsck, N. (2011). Examining a progressive model of self-stigma and its impact on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y Research*, 189(3), 339~343.
- Corrigan, P. W., & Rao, D. (2012). On the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Stages, disclosure, and strategies for chang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7(8), 464~469.
- Corrigan, P. W., River, L. P., Lundin, R. K., Penn, D. L., Uphoff-Wasowski, K., Campion, J., ... & Kubiak, M. A. (2001). Three strategies for changing attributions about severe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27(2), 187~195.
- Corrigan, P. W., & Watson, A. C. (2002). The paradox of self-stigma and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1), 35.
- David, J. C., Fonte, D., Sutter-Dallay, A. L., Auriacombe, M., Serre, F., Rasclé, N., & Loyal, D. (2024). The stigma of smoking among women: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340, 116491.
-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Fairhurst, S. K., Velicer, W. F., Velasquez, M. M., & Rossi, J. S. (1991).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n analysis of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95.
- Dillard, J. P., & Shen, L. (2005). On the nature of reactance and its role in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2(2), 144~168.
- Donoghue, S. (2000). Projective technique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Sciences*, 28.
- Fong, G. T., Hyland, A., Borland, R., Hammond, D., Hastings, G., McNeill, A., & Driezen, P. (2006). Reductions in tobacco smoke pollution and increases in support for smoke-free public plac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smoke-free workplace legisl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Tobacco Control*, 15(Suppl 3), iii51~iii58.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Simon & Schuster.

- Ha, S. H., Lee, G. E., Hwang, J. S., & Lee, J. H. (2024). Resistance to anti-smoking messages related to the higher smoking stigma of Korean female smokers. *Frontiers in Psychology, 15*, 1427201.
- Hammond, D., Fong, G. T., Zanna, M. P., Thrasher, J. F., & Borland, R. (2006). Tobacco denormalization and industry beliefs among smokers from four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3), 225~232.
- Heatherton, T. F., Kozlowski, L. T., Frecker, R. C., & Fagerstrom, K. O. (1991). The 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A revision of the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9), 1119~1127.
- Jorgensen, B. S., & Stedman, R. C.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Jung-Choi, K. H., Khang, Y. H., & Cho, H. J. (2012). Hidden female smokers in Asia: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with cotinine-verified smoking prevalence rates in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from an Asian population. *Tobacco Control, 21*(6), 536~542.
- Kim, H. K., & Lee, T. K. (2017). Conditional effects of gain-loss-framed narratives among current smokers at different stages of chang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2*(12), 990~998.
- Lee, Y., & Lee, K. S. (2019). Factors related to smoking status among young adults: An analysis of younger and older young adults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52*(2), 92.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 393~421.
- Park, M. B., Kim, C. B., Nam, E. W., & Hong, K. S. (2014). Does South Korea have hidden female smokers: Discrepancies in smoking rates between self-reports and urinary cotinine level. *BMC Women's Health, 14*(1), 156.
- Parry, S., & Hassan, L. M. (201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place across multiple places through the lens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2*, 115~123.
- Paul, C. L., Ross, S., Bryant, J., Hill, W., Bonevski, B., & Keevy, N. (2010). The social context of smoking. *BMC Public Health, 10*(1), 211.

- Poland, B. (1998). Smoking, stigma, and the purification of public space. In *Putting health into place: Making connections in geographical research*(pp. 208~225).
- Porr, C., Mayan, M., Graffigna, G., Wall, S., & Vieira, E. R. (2011). The evocative power of projective technique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0*(1), 30~41.
- Prochaska, J. O., & DiClemente, C. C. (1983). Stages and processes of self-change of smoking: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390.
- Quick, B. L., & Kim, D. K. (2009). Examining reactance with South Korean adolescents. *Communication Research, 36*(6), 765~782.
- Sharma, M. K., Suman, L. N., Srivastava, K., Suma, N., & Vishwakarma, A. (2021). Psychometric properties of Fagerstrom test of nicotine dependence: A systematic review. *Industrial Psychiatry Journal, 30*(2), 207~216.
- Stuber, J., Galea, S., & Link, B. G. (2008). Smoking and the emergence of a stigmatized social status.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420~430.
- Stuber, J., Galea, S., & Link, B. G. (2009). Stigma and smoking: The consequences of our good intentions. *Social Service Review, 83*(4), 585~609.
- Tan, Q. H. (2013a). Smell in the city. *Urban Studies, 50*(1), 55~71.
- Tan, Q. H. (2013b). Smoking spaces and wellbeing. *Health & Place, 24*, 173~182.
- Thompson, L., Pearce, J., & Barnett, J. R. (2007). Moralising geographies: Stigma, smoking islands and responsible subjects. *Area, 39*(4), 508~517.
- Thompson, L., Pearce, J., & Barnett, R. (2009). Nomadic identities. *Social & Cultural Geography, 10*(5), 565~581.
- Thrasher, J. F., Swayampakala, K., Borland, R., Nagelhout, G., Yong, H. H., Hammond, D., ... & Hardin, J. (2016). Influences of self-efficacy, response efficacy, and reactance on responses to cigarette health warnings: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smokers in Australia and Canada. *Health Communication, 31*(12), 1517~1526.
- Wium, N., Aarø, L. E., & Hetland, J. (2009). Psychological reactance and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obacco-control measur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7), 1718~1738.

Woo, J. (2018). Gendered stigma managem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61(3), 487~508.

논문투고일: 2026년 02월 27일

논문심사일: 2026년 04월 0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20일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Psychological Reactance to Smoking Cessation among Women Smokers in Their 20s and 30s

## The Mediating Role of Smoking-Area Perception

**Mun, Hyeonji\***

Ph.D. Candidate,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An, Soontae\*\***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Kim, Hyekyeong\*\*\***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y which smoking stigma leads to psychological reactance toward smoking cessation among female smokers in their 20s and 30s who use designated smoking areas, and explored the potential of place-based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nvestigate how female smokers' stigma experiences and perceptions translate into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smoking cessation in Korean society, the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approach consisting of a survey (Study 1)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Study 2). Study 1 confirmed that perceived smoking stigma operates indirectly on psychological reactance toward smoking cessation through smoking area perception, rather than exerting a direct effect. In Study 2, participants reported longstanding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ocial stigma, and showed a tendency to ascribe meaning to designated smoking areas as spac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recovery. This spatial perception was interpreted as mediating the psychological response that connects smoking stigma to resistance toward cess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in designated smoking areas should transition from denormalization strategies to autonomy-supportive approaches. Therefore, by exploring the psychological process through which female smokers' stigma experiences lead to cessation reactance via

---

\* First Author, moonhj0728@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soontae@ewha.ac.kr

\*\*\* Co-Author, hkkim@ewha.ac.kr

smoking area perception,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place-based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strategies.

**KEY WORDS** Smoking stigma • Psychological reactance • Smoking-area perception  
• Female smoker • Smoking cessation campaign